

#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서의 인물심리와 화음진행의 상관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ony Progression and the Emotional Symptoms of Characters in the Movie, 「The Hours」

황진희,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Jin-Hee Hwang(cocochromatic@gmail.com), Seungyon-Seny Lee(senylee01@gmail.com)

## 요약

영화음악은 영화 속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티븐 달드리(Stephen Daldry)감독의 영화 「디 아워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심리변화에 따라 음악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것에 입각하여 심리상태에 따른 음악적 요소는 각각의 인물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상인 음악적 요소의 상징적 방법으로 구성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중심어 : 「The Hours」 | 우울증 | 심리 | 영화음악 | 필립 글래스 |

## Abstract

Film music expresses the inner mentality of characters and performs a suggestive role of narrative. This study suggests the process of musical change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change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The Hours」 by Stephen Daldry. These musical elements depending on the mental states prove that the minute differences of each depression symptom could be expressed using symbolic methods of musical elements.

■ keyword : 「The Hours」 | Depression | Psychology | Movie Music | Philip Glass |

## I. 서론

### 1.1 이론적 배경

영화는 영화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예술 장르가 병합하여 이를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로 구현하는 종합적인 예술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영화의 영상으로 나타내고 청각의 이미지는 음악으로 나타내어 영화의 내러티브(Narrative)의 분위기와 정보 전달 그리고 암시 등의 역할을 한다. 이 중 청각의 이미지 즉 영화 음악은 물리적,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하며[1] 본 논문에서는 현대 영화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 및 표현하는 심리적 기능 음악을 연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데 고전적 방식의 영화 음악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하지만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현대음악의 불협 화음, 지속되는 패턴의 반복, 불완전한 종지의 해결의 사용으로 영화의 긴장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에 따른 현대 음악의 한 장르인 미니멀 음악(Minimal Music)은 기승전결의 틀을 벗어났으며,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 감정을 자극하는 일반적인 음악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ICC2014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8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5일

교신저자 : 이승연, e-mail : senylee01@gmail.com

의 과정을 따르지 않는 형식으로 영화의 구조를 열린 전개 방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작은 단위가 반복되는 것에 착안하여 의도적으로 음악적 재료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반복기법을 사용하여 느리고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즉, 모티브(Motive)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음악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단순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으로, 몇 개의 리듬과 선율 요소가 있어 이것을 반복하지만 조금씩 변형되어 변주로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를 주제삼아 짧고 간단한 화성을 무한정 반복함으로 작은 단위의 형태가 순환, 변형 되어 큰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음악이 특징이다. 이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객에게 제공되는 메시지에 대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만들어 낸다[2].

## 1.2 연구 범위와 방법

영화 「디 아워스」는 풀리처상을 받은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의 소설 「세월(The Hours)」을 원작으로 스티븐 달드리(Stephen Daldry)가 제작한 영화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을 공통소재로 각각 다른 시대에서 다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음악 작곡가로는 20세기 후반에 성행하였던 미니멀 음악 작곡가 필립 글래스(Philip Glass, 1937~)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니멀 요소를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영화에 사용한 곡은 내제 음악을 제외한 총 10개의 곡이 19장면에 사용되었으며 각 인물의 슬픔이나 우울함,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내러티브에서 음악이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디 아워스」에 나오는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의 자아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과[3], 이들에게 보이는 우울한 정신 상태와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로 나타나는 인물의 내면적 특징과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한다[4].

## II. 본 론

### 2.1 영화 소개

영화 「디 아워스」는 물을 매체로 하여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흐르는 강물로 연출한다. 물의 메타포는 간접적 의미로 시간이 흐르는 것, 즉 세월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라는 관점은 또 다시 필립 글래스의 음악에서 인물성격을 묘사하는 음악적 표현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 구별된 시대적 배경에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비교 진행되는데, 아래의 표를 통하여 개별적 인물들을 살펴본다.

표 1. 인물 '버지니아'의 시공간 배경

인 물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배 우	니콜 키드만 (Nicole Kidman)	
년 도	1941년	1923년
장 소	sussex, 영국	Richmond, 영국

버지니아는 영화 전체의 공통주제의 상징이자 영상 처음과 마지막을 길잡이로서 인도하는 차별성 있는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첫 장면의 버지니아 심리는 죽음을 앞둔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며, 마지막 장면은 첫 장면인 1941년의 시점의 영상으로 그녀의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간직하는 심리를 나타내면서 삶을 마감하는 내러티브로 연출한다. 이것은 같은 영상이지만 첫 장면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마지막 장면에 평안함으로 극복하여 죽음으로서 자유해지는 버지니아의 우울증세 해결 과정이 표현된다. 이후 1923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전개되는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내용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우울함과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그린다. 또한 버지니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주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 혼자 지내는 모습, 과거 자살을 시도한 모습이 표현된다. 이러한 모습은 남편 레너드로부터 심리적 억압을 받은 것으로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그린다.

표 2. 인물 '로라'의 시공간 배경

인 물	로 라 브라운(Laura Brown)	
배 우	줄리엔 무어(Julianne Moore)	
년 도	1951년	2001년
장 소	L.A.	N.Y.

로라는 자살 시도하는 장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내러티브를 갖는다. 1951년은 자살하기 전의 삶으로 어린 리처드의 엄마 역할로 등장하며 자살 시도 이후로는 2001년 늙은 로라의 역할로 등장한다. 남편 댄은 로라의 삶을 억압하는 인물로서 이로 인해 우울 증세를 보여 영화의 장면에서 지나치게 부각되는 감정의 양면성이나 가족을 외면한 그녀의 자살시도를 나타내는 장면들을 그린다.

표 3. 인물 '클라리사'의 시공간 배경

인 물	클라리사 본(Clarissa Vaughan)	
배 우	메릴 스트립(Meryl Streep)	
년 도	2001년	
장 소	N.Y.	

클라리사는 2001년을 배경으로 하며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리처드의 죽음 전후로 심리 상태를 나눌 수 있다. 리처드 죽음 이전의 삶은 리처드 중심의 삶이며 리처드 죽음 이후의 삶은 클라리사 자신 중심의 삶의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되어 그려진다. 이것은 리처드의 자살로 클라리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명한 행동을 보인다. 리처드는 클라리사 삶의 일부이지만 클라리사를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존재로도 그려진다. 이러한 억압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면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을 통하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녀의 우울한 심리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표 4. 인물 '리처드'의 시공간 배경

인 물	리처드(Richard)	
배 우	에드 해리스(Ed Harris)	
년 도	1951년	2001년
장 소	L.A.	N.Y.

리처드는 1951년의 로라의 아들로서의 어린 리처드와, 2001년 클라리사 본의 옛 애인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고 있는 성인 리처드의 두 캐릭터(Character)로 등장하며 1951년과 2001년 두 시대를 공존하는 인물이다. 영화의 장면에서 리처드는 환청과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엔 자신을 패배자라고 할 만큼 우울함이 가득한 인물이다. 리처드가 느끼는 버림받은 감정은 어릴 적 자신의 엄마 로라로부터의 버림받은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리처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와 같이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 리처드는 각자의 삶에서 정체성 발견을 위한 과정의 시간을 보여준다 [5].

## 2.2 등장인물의 역할

표 5. 세 인물의 공통 주제

	버지니아	로 라	클라리사
공통증세	우울증상		
공통인물	리처드		
공통소재	소설 「달러웨이 부인」		

영화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공통으로 하루의 삶에서 우울증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의 얘기를 그리고 있다[6]. 이것은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니아와 로라 자신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울한 삶을 해결하며 클라리사는 그녀의 파트너 리처드의 자살로 인

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또한 이들은 리차드와의 관계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버지니아와 리차드는 집필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리차드가 버지니아를 존경하는 대상이다. 로라는 리차드의 어머니면서 버림받은 존재로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이다. 클라리사는 리차드가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대상이다. 또한 병을 앓고 있는 리차드를 보살피며 클라리사 삶에서 집착의 대상이 된다.

영화 속 소설 「델러웨이 부인」은 버지니아가 집필하는 소설책이며 로라는 그 소설책을 읽고 클라리사는 소설 속 주인공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각각 다른 시공간을 하나로 엮어주는 소개의 역할을 한다.

### 2.3 등장인물에 따른 음악적 특징

영화는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 세 명의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그려지며 영화음악을 작곡한 필립 글래스는 각각의 인물에게 보이는 우울 증세를 음악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세 명의 인물에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특징과 성격 또는 행동,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음악을 작곡하였음을 알 수 있다[7].

표 6. 버지니아의 화성진행[8]

곡 명	악 보
Why Does Someone Have To Die	
Dead things	

버지니아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억압이나 생각 또는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내적 불안정을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쓰는 것을 통하여 표출한다[5]. 이러한

버지니아는 「디 아워스」의 “Why Does Someone Have To Die”와 “Dead things”의 곡과 연관하여 음악적 특징이 발견된다. 이 두 곡은 버지니아의 불안정한 내적 심리상태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내러티브를 표현하기 위해 공통으로 ‘Gm - G#aug - Bb/F’ 로 변화하는 반음계(Chromatic)의 협화음과 불협화음 진행으로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반음계 진행의 음악이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등장인물의 죽음이나 불만족스러운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의 효과를 높여준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어두운 내면 심리상태를 Gm화음과 반음계적 화성진행으로 표현하여 영화의 장면과 음악적 분위기의 성격을 일치시킨다.

표 7. 로라의 화성진행[8]

곡 명	악 보
Dead Things	
Why Does Someone Have To Die	

로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의 불만족이 감정의 양면적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인물이다[5]. 로라에게 내재된 불만족스러운 심리상태를, 원래의 코드를 전위시켜 멜로디와 근음으로부터 생기는 음정간격을 통하여 부딪치는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표현한다. 이것은 [표 7]의 “Dead Things”악보와 같이 G화성 단음계(Harmonic Minor Scale)를 사용하여 Gm키(key)

에서 바라본 Im코드들을 2전위시켜 도미넌트 음인 ‘D’를 베이스에 지속음으로 유지하여 ‘E<sup>b</sup>’이 단9도로 이루어지도록, 멜로디에서도 단2도를 이루어 긴장감을 연출한다. 따라서 원래의 코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전위의 형태를 사용한 것은 불안한 소리를 위한 의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장면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불안한 심리와 융합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의 “Why Dose Someone Have To Die” 곡은 두 가지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중심음(Pivot note)을 활용한 화음의 미묘한 변화를 특징으로 반복 패턴이 사용이 되어 인물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첫 번째 장면은, 로라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남편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때 음악은 중심음을 변화하여 생긴 화음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음악을 이끌어 간다. 악보와 같이 ‘G’음과 ‘D’음을 공통으로 하여 Gm코드를 만들어 내고 이에 E<sup>b</sup> 코드가 텐션(Tension)으로 더하여 진다. 이때 생긴 ‘D’음과 ‘E<sup>b</sup>’음이 단2도 음경간격을 통한 불안정한 소리가 긴장감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로라에게 나타나는 이중인격의 양면적 심리 대립상태를 음악으로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 클라리사와 늙은 로라가 만나는 장면으로 클라리사의 현실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의 장면이다. 이때 영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표 7]과 같은 화음의 표현 기법으로 텐션을 사용한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연출한다. 이것은 과거의 클라리사와 현재 그녀가 느끼는 감정과 충돌하는 긴장의 표현을 단2도로 나타낸다. 더욱이 이 장면은 클라리사의 대사가 별로 없이 얼굴이 클로즈업 된 영상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연출이 음악의 특성과 영상의 조화로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클라리사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로부터 파트너 리차드에게 삶이 구속되어 있다. 클라리사의 보살핌을 받는 리차드는 자신의 삶과 클라리사의 삶의 정체성을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다. 리차드의 자살로 인해 클라리사는 비로소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무의식적 자아를 발견한다. 이로서 무의식적 자아의 우

표 8. 클라리사의 화성진행[8]

인물	Choosing Life
클라리사	49 Am <sup>9</sup> /E <sup>b</sup> Am <sup>9</sup> F <sup>11</sup> /C
	51 Adim <sup>9</sup> /C      Adim <sup>9</sup> Adim <sup>9</sup>
	61 Gm <sup>7</sup> /B <sup>b</sup> Gm <sup>7</sup> (b <sup>5</sup> )
	63 F <sup>9</sup> /A      F <sup>9</sup>

울한 감정을 버리고 클라리사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을 보여준다[5].

이 여인 역시 우울함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우울함을 [표 8]에서 49마디의 왼손의 반주패턴 구성음인 ‘A’음을 중심으로 단3도 위의 음 ‘C’음을 반복 진행함으로써 Am코드를 이루어 단조화음의 어두운 느낌을 인물의 감정과 매치를 시킨다. 이러한 Am<sup>9</sup>/E<sup>b</sup> - Am<sup>9</sup> - F<sup>11</sup>/C - Adim<sup>9</sup>/C - Adim<sup>9</sup> - Adim<sup>7</sup>(<sup>9</sup>) 진행이 악보에서 생략한 53마디에서 60마디까지 Gm<sup>9</sup>/D - Gm(<sup>9</sup>) - Gdim(<sup>9</sup>)/D<sup>b</sup> - F<sup>9</sup>/C - D<sup>7</sup> - Gm<sup>7</sup>/B<sup>b</sup> - Gm<sup>7</sup>(b<sup>5</sup>) - F<sup>9</sup>/A - F<sup>7</sup>(<sup>9</sup>)/C 의 과정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진행은 결국 61마디에서 중심음이 ‘F’음으로 이동하며 완전4도 아래인 ‘C’음을 반복 진행함으로써 F코드를 이루어 장조의 느낌을 연출하는데, 마지막 4마디의 화성진행은 Gm<sup>7</sup>/B<sup>b</sup> - Gm<sup>7</sup>(b<sup>5</sup>)/B<sup>b</sup> - F<sup>9</sup>/A - F<sup>9</sup>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심음의 이동으로 생기는 9, 11, 13의 텐션 코드들의 특성이 클라리사의 복잡한 내적 성향과 연결되어 어두웠던 심리상태가 밝고 깔끔하게 변화 정리되는 것을 음악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감독이 의도한 인물의 결말의 암시라고 볼 수 있다.

표 9.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8]

특징	I'm Going To Make A Cake
공통	

[표 9]의 악보는 “I’m Going To Make A Cake”곡으로 A화성단음계를 사용하여 Am키(key)에서 바라본 Im화음으로 이루어져있어 마이너와 메이저 화음이 번갈아가며 진행되어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연출한다. 또한 위 악보의 특징은 11마디와 54마디와 같이 3도를 없앤 E7(no 3rd)코드와 E7코드의 사용이다. 이것은 3음 없이 7음으로 멜로디를 나타내어 그 다음마디에서 3음이 멜로디로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연출하여 불안정한 E7(no 3rd)의 불안정한 코드가 메이저 화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3음의 사용이 E7으로 확립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진행은 같은 조성 안에서의 3음과 7음의 활용으로 코드의 색채변화를 이용한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55마디에서와 같이 3음이 베이스로 사용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매우 세계’를 나타내는 썬여림 기호인 ff(포르티시모)로 갑자기 종지한다. 이것은 영상에서 각각 다른 시대에서 그려지는 버지니아와 클라리사 두 인물의 행동과 일치시킴으로 이들의 절망적인 감정을 더욱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이후 나타나는 56마디의 온습표는 이 두 인물이 절망적인 감정을 느낀 뒤 한숨을 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장면에서 인물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음악에서도 썬표로 나타내어 ‘쉬’이라는 의미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절망’의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버지니아와 클라리사 영상을 교차편집으로 다른 시공간이지만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음을 음악으로 유추하게 한다. 종국적으로 ‘작고 여러

개’의 뜻을 가진 P(피아노)의 마무리는 영상에 담고자 하는 내러티브의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앞서 설명한 썬표의 사용으로 이를 더욱 드라마틱한 느낌을 내도록 해준다. 또한, Am를 2전위 시킨 Am/E의 코드 사용은 불안정한 소리를 만들어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물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악상기호와 썬표 그리고 전위형태의 종지 사용은 인물의 감정과 음악을 일치시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가 절망감을 느끼는 장면에서 “I’m Going to Make A Cake”의 음악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이들의 심리상태가 같은 상태임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발견한다. 이 곡이 흐를 때 버지니아는 언니와 작별의 키스를 한다. 이것은 버지니아가 런던의 삶을 동경하는 의미의 키스로 그녀가 갈망하는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런던에 갈 수 없는 버지니아는 자신의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또한 로라의 전반적인 장면에서는 가족에게 얽매어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는 심리상태가 그려진다. 클라리사는 이제껏 자각하지 못한 자신의 무의식적 자아의 감정을 인지하여 절망과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보인다.

이와 같이 세 인물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절망감과 분노를 나타내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I’m Going To Make A Cake”음악이 사용되어 3화음 코드진행을 선보임으로 그녀들의 확고한 마음을 음악적인 코드진행으로 보조하고 있다. 이것은 Am코드가 공통으로 주된 화성진행을 이루어 이 곡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9], 중심음을 활용한 화음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곡의 분위기와 멜로디를 이루어 간다. 또한 아르페지오(Arpeggio)와 같이 흐르는 진행이 아닌 3화음 형태의 반복적인 코드진행과 옥타브진행을 사용함으로써 절망에서 나오는 강한 분노의 공통된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진행을 통하여 영상에서 표현하는 인물의 감정을 음악의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II. 결론

본 논문은 영화 『디 아워스』를 통해 세 명의 여인이 외부로부터 받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한 감정이 음악과 연관되는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인물에게 보이는 캐릭터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으로 보이는 내적 심리상태를 음악의 요소를 활용하여 나타내어 이들의 심리가 공통으로 우울한 감정임을 상징한다. 또한, 서로 다른 시공간이지만 세 인물 간에 같은 내러티브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도 음악이 이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여 영상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분석 결과 음과 화성진행을 통하여 긴장과 이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몇 가지 유형이 보인다.

1. [표 6]과 같은 반음계 진행.
2. [표 7-9]와 같이 중심음의 활용.
3. [표 8]과 [표 9]와 같이 마이너-메이저 교차 화음의 감성적 유도 진행.
4. [표 9]와 같이 화음을 이용한 규칙적인 화성패턴의 반복 진행.

위와 같이 반음계와 중심음의 활용과 마이너-메이저 화음진행과 패턴을 통하여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을 음악으로 나타낸다.

표 10. 세 여인의 공통되는 음악적 특징

특 징	화성 및 화음의 공통성
스 케 일	화성 단음계 (Harmonic Minor)
화음진행	중심음을 활용한 전위 형태의 화음 진행
화성진행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반복

영화 『디 아워스』의 음악에서는 세 여인의 공통된 심리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화성 단음계를 사용하여 단조(Minor)의 화음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둡고 절망적인 심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영화의 영상편집이 약 80여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그려지는 영상을, 보는 사

람으로 하여금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심음을 중심으로 전위시킨 화음 진행의 변화를 인물의 감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심리상태의 영상과 음악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화음의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협화음의 안정된 느낌과 불협화음의 불안정한 느낌을 연출하여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조성한다. 이것은 인물의 심리상태와 내면적 요소에도 연관이 있으며 죽음을 상시 생각하며 삶과 갈등하는 이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효과를 높여준다.

이와 같이 인물에 내면적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음악의 특징이 음악에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구성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을 바탕으로 『디 아워스』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화성진행이나 패턴진행 방향이 심리와 관계되어 활용되는 사례와, 더 나아가 각 인물에게 보이는 우울 증세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음악과 관련된 관계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심리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영화의 예술적 효과를 음악적 분석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심리 혹은 정신적 트라우마(Trauma)와 연관된 주제의 많은 영화들을 이러한 기법으로 음악 분석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영화계의 음악이론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최유리, *필름을 위한 사운드 디자인*, 예술, 2000.
- [2] 심옥식, “최소주의 음악에 대한 고찰”, *이화음악논집*, 제2호, pp.60-81, 1991.
- [3] 이지아, *Stephen Daldry의 the hours에 나타난 페미니즘*,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 [4] 황진희, *심리변화에 따른 음악의 특징 - 영화 『The Hours』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영상디지털음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4.
- [5] 성정희, “영화 <디 아워스>에 나타난 인물 변용과 델러웨이 부인의 우울증 해소 과정 - 원작소

- 설 <세월>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영화와문학치  
료, 제4집, pp.261-280, 2010.
- [6] M. H. Moreas, “Depression and Suicide in the  
Movie 『The Hours』”, MSc. in Psychology,  
Universidade Federal de Santa Catarina  
(UFSC), Florianópolis, SC, Brazil, 2006.
- [7] 이상윤, “영화와 주제음악의 형식적 관계성에 관  
하여: 영화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  
족, Vol.40, pp.257-288, 2010.
- [8] *Philip Glass: Music From ‘The Hours’ (Piano  
Solo)*, Wise Publications, 2003.
- [9] 이수일, “Philip Glass의 영화음악 『The Hours』의  
분석을 통한 미니멀리즘 음악 연구”, 음악교육공  
학, 제7호, pp.147-172, 2008.
- [10] 『The Hours』, DVD. Director by Stephen  
Daldry, 서울: (주)태원엔터테인먼트, 2003.

#### 저 자 소 개

##### 황 진 희(Jin-Hee Hwang)

정회원



- 2008년 2월 : 협성대학교 예술대  
학 피아노과(음악 학사)
- 2014년 8월 : 상명대학교 문화기  
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영상디지털음악 전공(음악학 석  
사)

<관심분야> : 영화음악분석, 감성공학

##### 이 승 연(Seungyon-Seny Lee)

정회원



- 2002년 :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  
터음악작곡 박사
- 2005년 ~ 2008년 : KAIST, 문  
화기술대학원 교수
- 2009년 ~ 현재 : 상명대학교 문  
화기술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

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음악분석, 융합인재교육, HCI